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생활이 영생의 길입니다

웃음은 저항력을 강화해주고 생명력을 활성화시켜 엔돌핀과 생명자를 발생시킵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욕심이 있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피가 썩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축적되어서 점점 많아지면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병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직사해서 죽습니다. 왜? 사람 몸이 덩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썩은 핏속에서 발생한 병균이 점점 번식을 하여 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모든 기관의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제일 긴 세포는 29일을 살니다. 29일을 사는 세포가 29일만 살면 죽어서 목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들 목욕할 때 매일 목욕을 해도 때가 나오죠? 그 때가 죽은 세포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욕심을 부리게 하는 주체적인 나라는 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는 의식이 없어야 마를 상태가 나라는 것을 기증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대로 피가 계속해서 썩습니다. 욕심 부린다는 것은 나라는 의식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저것을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전부 욕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욕심인 줄 모르고, 어떤 물건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역시 욕심입니다. 나라는 주체의 식에 달려 있는 마음은 전부 욕심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피가 썩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죽은 세포를 보충해 주는 재생되는 세포가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기력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며 저항력마저 없어지니까 결국은 병

에 걸렸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이 바로 저항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저항력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멸하는 힘을 무찌를 수 있는 물질이 생명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에이즈 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 에이즈 병은 저항력이 감퇴되는 병입니다. 저항력이 감퇴되는 병! 말하자면 에이즈 병에 걸렸다 하면 바로 저항력이 감퇴되어서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항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소멸하는 힘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생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밑에 가면 산소를 많이 호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나무 밑에 가지 아니 하더라도 만날 웃기만 웃으면 생명자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자주 웃으면 병이 낫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항력이 강화되어서 자주 웃으면 암 병이 낫는다는 말도 저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웃으면 핏속에서 생명자가 발생합니다. 생명자가 발생되어서 사람의 몸, 각 장기에서 저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있는 병도 낫고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마음만 잘 먹으면 영생입니다. 마음만 바로 먹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웃으세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일 빙글빙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느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고 다녀야 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웃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웃는 사람의 얼굴은 꽃처럼 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생명자가 발생되어서 점점 줄어듭니다. 무엇인가 수심에 차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조금조금



구세주 조희성님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허리도 꼬부라집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펴려고 하면 뼈가 굵어졌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야 펴집니다. 웃으면 가슴이 저절로 펴져서 절대로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웃으며 예배를 보면 감로이슬이 연 결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보는 시간에 매일 웃으면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것이 지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갑니다. 자주 웃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시간만 계속 웃으면 그 다음부터는 향취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감로 이슬성신이 임하기 때문에 향취 냄새, 감로 이슬성신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

람의 사무실에 들어오면 향취냄새가 나죠? 이 사람은 몸 안에, 몸 자체가 감로 이슬성신으로 뭉쳐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만 들어와도 향취냄새가 나고, 또 이 사람 사무실에 있는 꽃이 일 년이 넘어도 지지 않습니다. 꽃이라는 건 백일홍, 십일홍이라고 해서 열흘만 되면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도 지지 않습니다. 이 구세주라는 사람이 바로 영생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생체의 몸이 거기 놓아 있으면 영생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질 수가 없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구세주의 몸에서 감로 이슬성신이 나오니까 생명의 물질이 전부 꽃에도 전달이 되니 꽃이 안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매일 나오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므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원인은 욕심을 부려서 피가 썩었기 때문에 피가 전부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것입니다. 피가 굳어지면 피가 돌아 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주를 받아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웃으면 바로 엔돌핀이 나오면서 빛의 물질인 생명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련의 키틀리안이라는 사람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진을 찍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그 빛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라' 라는 말은 만든 말이

고 사실은 빛입니다. 키틀리안이라는 사람이 나무 잎을 찍어보니까 빛이 나오고, 생명이 있는 나무나 생명이 있는 사람을 사진 찍어도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코에서,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진에 감로 이슬사진, 빛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짜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세주 되기까지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희생적으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누가 돈을 대주어서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코피 쏟는 것을 보고 미군이 미 8군 사령관에게 건의를 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이 사람 소유로 만들자고 그 지방 유지들이 말하는 것을 이 학교가 내 소유가 되면 학교의 운영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므로 이 학교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움직이려면 국립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에 이 학교를 받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욕심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세주가 된 것이지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03년 7월 18일 말씀 중에서

조희성님의 발자취



본격적으로 죄짓지 않는 투쟁을 시작하다

해와이긴자께서는 상세히 적어간 꿈 내용을 보고 그 전날 심령 상태를 풀이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적하셨다

회사에서 웬일인지 일주일째 퇴근을 하지 않으니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였고 집에서도 수시로 회사로 전화가 왔다. 점점 시끄럽고 복잡해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해와이긴자는 어떻게 아시고 망원동 모 여관에 들어가라고 즉각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잠을 잘 때, 꿈을 꿀 테니 그 꿈을 적어서 자기한테 매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까지 꿈을 꾸어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였더니, "하여튼 꿈을 꿀 테니 한번 자봐." 그러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녹음기와 간단한 생활 필수품을 챙겨서 제일 조용한 2층 끝방에 입실하여 하루 종일 방안에서 영모님의 말씀을 테이프를 들으며 기도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해와이긴자의 말씀대로 정말 매일 밤마다 신기하게 꿈이 꾸어졌다. 꿈 내용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가면 해와이긴자께서 그 전날의 심령 상태를 꿈

으로 날같이 풀이해서 호통을 치거나 칭찬을 하셨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관에 들어간 후 며칠 되자, 묘하게도 갑자기 없던 손님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옆방에서는 매일 밤마다 몸살 강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살아오면서 불의라면 눈곱만큼도 허용하지 않은 성품이라 당장 뛰어나가 요철을 내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다른 일에는 일체 관심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던 고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테이프에서 나오는 영모님 말씀만 들으면서 애를 쓰며 가까스로 그 순간을 참고 넘겼다.

그리고 그날 꿈 내용을 적어가지고 가니 아니나 다를까 해와이긴자께서는 '관심의 음란죄'에 걸려 넘어졌다고 호통을 치셨다. 이래가지고 무슨 큰일을 하느냐고 야단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하기를 이제는 밖에서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



조희성님이 수도할 때에는 침침산중에 위치해 있었던 밀실/그림 박준구 장로

세웠다.

그런데 다음날에는 어제보다 더 요란스럽게 강간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이었다. "밖에 누구 없어요? 구해주세요!"라는 소리가 베니라 합관 한 장으로 막은 벽을 뚫고 귀를 찌를 듯이 들려왔다. 옆방의 소리에 마음을 빼

앗기지 않으려고 눈으로도 영모님 얼굴을 새기며 귀로는 영모님 설교 테이프를 열심히 들으려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의 음란죄'에 걸려 넘어가려는 순간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다음날 해와이긴자께서는 "어제는 겨우 이겼군." 하셨다. 또

다음날도 계속 강간 사건이 일어났으나 점점 확실하게 관심을 끊고 이겨나가니,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되던 강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손님이 들끓던 여관에 손님들이 딱 끊어지게 된 것이다. 한 동안 이상하게 계속해

서 손님이 없자, 여관 주인은 이 유가 뭘까? 꿈꿈이 공리하 끝에 무당을 불러 그 원인을 물어 본 모양이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209호실 손님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관 주인은 도대체 209호실 손님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않고 뭘 하나 하고 문틈으로 방안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방안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리시버를 귀에 꽂고 있는 것을 보고, 의심하여 이 사람이 간첩인 것 같다고 정보부에 신고해버렸다.

어느 날 정보부원 두 명이 찾아와서는 어떤 사람의 신고가 있어서 찾아왔다고 신분을 밝히고 방 안을 살피기 위해 들어왔다. 아무리 뒤져도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이 사람의 꿈꿈이 노트에 적힌 내용에 대해 물었다. 내용 중에 북괴군이 남침한다는 등의 글귀를 보고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것이 무슨 내용이라고 묻기에 꿈꿈 내용을 쪽 적어 본 것이라고 대답

을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분을 한 번 보자고 하여 건네니 육군 장교 전역 등을 확인하고는 그와 같은 것이 단순히 꿈을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여관 주인의 신고로 오게 되었다고 슬쩍 귀뜸해 주며 입을 크게 벌이지 말아 주었으면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여관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승승장구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겨나가니 해와이긴자께서는 차를 가지고 와서는 짐을 챙겨서 타라고 하셨다. 이 사람을 태운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수십 년 간 신앙 생활을 해온 낯익은 소사 신앙촌의 오만제단 가는 열길을 지나서 산을 넘고 또 넘어 소위 '밀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3년간의 생사혈투의 시험과 연단생활이 시작된 것이다.*